

차바이오, 노인성 황반변성증 임상

미국 ACT와 공동 연구개발 진행 ... 6월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

차바이오앤디오스텍(대표 황영기)은 동종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를 이용한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증의 임상시험 1상과 2상a 임상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다고 5월22일 발표했다.

임상 허가는 2011년 5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희귀질환질환인 스타가르트병에 이어 2번째이다.



건성 노인성 황반변성증(Dry-AMD)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료제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서 상용화하면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미국 ACT(Advanced Cell Technology)와 황반변성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CT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11년 1월 노인성 황반변성증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임상시험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ACT는 1월 실명 직전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테스트하던 중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세계적인 의학지인 란셋에 게재한 바 있다.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정형민 사장(사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ACT의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도 만족스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월경 본격적인 환자 모집과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황반변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22>